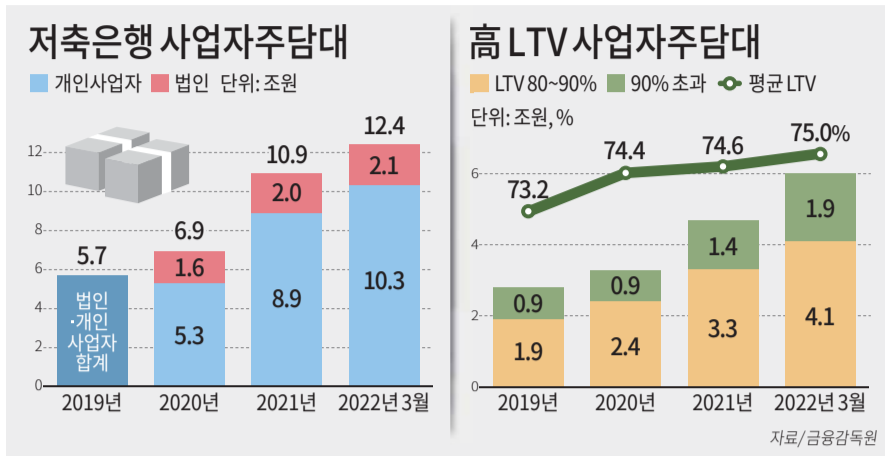


저축은행, 대출자 다중채무비율 70% 돌파... 부실 '경고음'

가계대출규제로 개인·기업 몰려 4월 잔액 110.4조... 전년비 32%↑ 업계 "리스크 관리로 유연히 대응"

최근 저축은행의 대출자 다수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잠재부실률이 가파르게 상승,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가계가 증가하며 시중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의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110조4392억원으로 전년 동기(83조8952억원) 대비 31.6% 늘었다. 2019년 1분기 당시 저축은행 대출잔액이 60조1204억원 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83.7% 급증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대출잔액은 총 2087조3892억원으로 전년 동기(1960조9620억원) 대비 6.4% 늘어나



소폭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업권 전체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율은 67.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 대비 5.2% 상승했으며 이들의 가계대출 총액도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대출금도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의 75.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저축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중채무자는 여러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만큼, 도미노 처럼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잠재부실률도

확대됐다. 지난해 말 3.8%에서 지난 3월 말 4.1%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잠재부실률이란 전체 대출 잔액 대비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잔액을 뜻한다. 여기에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 가운데 대외약재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까지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5대 저축은행들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조629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90억원)보다 45.4% 증가했다. OK저축은행이 9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 8899억원, 웰컴저축은행 5725억원, SBI저축은행 1137억원, 페퍼저축은행 11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한 장기대출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을 거두지만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 부

동산PF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단기간에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크게 늘고 부동산PF 대출까지 급증하자 금융당국도 이들의 '연쇄 부실' 위험을 우려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지난 21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저축은행 현장검사 때 사업자 주담대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들은 과거와 달리 한도 금액 내에서 안정적으로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능력도 발전해 유연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신한은행-더존비즈온 'JV' 합작법인 설립 추진 "데이터 비즈니스 기반 中企 공급망금융 목표"

공동소유... 매출채권팩토링 등 수행 "中企 신속 자금지원 특화 플랫폼 준비"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과 금융 IC T·기술 경쟁력을 연결해 중소기업(SME) 시장을 선도하고자 합작법인(JV) 설립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JV' 설립계약 체결 후 우선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급자금융 중개 및 기업데이터 사업 등을 공동 투자 및 운영하기로 했다. JV는 중소기업의 실시간 회계 및 ERP 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모델을 바탕으로 매출채권팩토링 등 각종 데이터 비즈니스를 수행하게 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의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의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서비스다. JV는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매출흐름 등 각 경영활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회계 및 전자적자원관리(ERP) 데이터분석을 통해 기업의 팩토링 신청, 심사 등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특화 공급망금융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공급망 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은 경영활동 단계에 따라 만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적시에 다양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공급망금융 사업모델이 발달하여 시투에프오(C2FO), 타울리아(Taulia), 펀드박스(Fund Box)와 같은 선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다.

법인은 또한 더존비즈온이 획득한 '기업정보조회업' (기업CB라이선스의 일종)과 중소기업 경영관리 프로그램 이용고객 데이터 분석을 접목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정보를 금융권 등 관련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데이터 비즈니스도 수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 체결로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특화 금융플랫폼을 빠르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종 업종간 제휴를 통해 데이터 연결로 업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해 신한금융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출범식. 5대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 빗썬, 업비트, 코인원, 코빗)는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출범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출범식은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준행 고팍스(스트리미) 대표, 이재원 빗썬(빗썬코리아) 대표,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가 참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우리금융, 황폐화 방지 등 산림사업 확대

AFoCO 업무협약... ESG 경영 강화 우리금융그룹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FoCO는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산림분야 최초 국제기구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촉진하고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

기구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AFoCO와 협력해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등 산림 복원,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공동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경영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동 추진 ▲산림 및 생태계 관련 글로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산림 관련 지식 및 기술 보급 협력 등 ESG경영 실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BC카드 "신세계백 이용 고객에 최적 혜택 제공"

세븐플렉스 등 제휴카드 5종 출시 BC카드사는 백화점 이용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최적의 혜택을 제공하는 신세계백화점 제휴카드 5종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BC바로카드 전용으로 출시되는 5종의 제휴 신용카드는 ▲세븐플렉스(SEVEN FLEX) ▲카드플러스 ▲클리어플러스 ▲리워드플러스 ▲아시아나플러스 등 5종이다. 모든 카드에는 신세계백화점 멤버십 혜택을 기본 제공한다. 이외에도 외식,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탑재했다. 우선 세븐플렉스는 백화점은 물론 베이·헬스 뷰티를 포함 5개 영역에서 7%

를 할인한다.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아울렛, 신세계 면세점에서 등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용자라면 동물병원 할인 혜택은 구미를 당기는 혜택이다. 특히 세븐플렉스의 신세계백화점 7% 할인은 제휴카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카드플러스는 카페·외식 등 5개 영역에서 최대 10%를 할인한다. 이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한 혜택에 포함했다. 온라인 쇼핑 등 8개 영역에서 최대 7% 할인해주는 클리어플러스는 다른 카드에서 적용하는 외식 등의 서비스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음식 부분을 더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김민권 BC카드 카드사업본부장은 "BC바로카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맞춤형 5종 카드를 출시했고, BC바로카드센터를 통한 즉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실물 카드 배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면서 "향후 고객이 더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세계백화점과 협업하여 신규 제휴카드를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신한은행 주담대 금리 만기연장 접수

신한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대로 기간만 5년 연장하는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신한 솔(SOL)에서 간단

한 입력만으로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출 수 있다. 비대면 만기연장은 신한 솔(SOL)에 로그인 후 하단 우측 전체메뉴에서 '관리→대출→만기연장(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집단대출이나 공동명의담보인 주택담보대출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